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김 갑 선(Kapsoon Kim)**

< 목 차 >

I. 서론	IV. 국내 대학원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II. 질적 연구방법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V.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
III.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VI.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의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76편의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핵심내용으로 질적 연구패러다임, 연구설계,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글쓰기, 질적 연구의 평가준거를 제시하고 교수전략을 논하였다.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인 연구 실체가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토대로서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질적 입장(qualitative stance)을 인식하고 질적 연구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 질적 연구, 질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 교수, 질적 연구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pproach to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QR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draw trend of TQRM, 76 course syllabi collected in the research oriented universities' master and doctoral program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proposes both common topics and essential strategies for TQRM in terms of the paradigm of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design, wide range of approaches to QR, diversity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riting, and evaluation criteria.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qualitative stance and to understand paradigms and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frameworks of QR for conducting QR reiteratively, creatively, reflectively.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edagogy.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8240).

** 중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kapskim@jwu.ac.kr)

•논문접수: 2015년 8월 24일 •최초심사: 2015년 8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5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255-275,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255]

I. 서론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는 이미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실무와 이론과의 상호작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관심과 중요성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양적 방법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탐구현상의 본질에 관한 맥락과 과정 중심의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상 혹은 실무와 이론과의 상호작용적 연계를 통해 현상 혹은 실무의 향상을 증진하고 현상에 대한 통찰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의 사회과학은 “서구이론의 창의적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적 사회현상을 개별성에 기반한 귀납적인 이론들을 입론화하여 보편적인 이론으로 생성시켜 나아가는 노력이 강구되어야하는데”(김갑선 2002, 41; Kim 2004),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지식체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의 강점으로 인하여 질적 연구자의 증가와 질적 연구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질적 연구는 더 이상 종래의 비주류적 연구방법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주류적 연구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teaching)에 관한 경험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각 전공분야별, 혹은 질적 연구별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반면에, 질적 연구가 활발한 국내 간호학과 교육학 등에서는 대학원과정에서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운영 중이지만, 그 관심은 일차적으로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질적 연구방법 배우기’에만 집중되어 왔을 뿐, 국내 질적 연구 학계에서는 정작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질적 연구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공론화 한 바가 거의 없다.

질적 연구의 후발분야인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이 미려하지만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를 수행할 연구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적 연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수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 연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 석박사과정의 학습자들이 질적 연구에 대한 잠재적 관심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는 배우기 어렵고 귀찮으며, 수행하기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매우 소수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을 제외하고, 대

다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교과에서 양적 연구방법 위주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연구접근에 관한 편향적 세계와 연구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현상의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균형 잡힌 연구 설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의 인간행태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과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질적 연구’교과목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원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 교육내용 개발은 질적 연구의 절차나 기법만을 단순히 구사하는 ‘기능적 기교적 질적 연구자’의 배출이 아니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철학적 배경 이해를 근간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진정한 질적 연구자’ 육성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내용을 개발하는데 있다.

II. 질적 연구방법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연구 논점에 따라 교과목 운영 경향에 관한 연구, 교과목 내용개발에 관한 연구,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였다. 이들 대다수 연구의 공통점들은 첫째, 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이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토대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질적 연구자의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셋째, 인식론적 방법론적 성찰이 없는 기능적 기법적 질적 연구를 경계한다는 점이다.

첫째 연구 유형은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운영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심분야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전반적 운영 추세를 검토한 연구들이다. Webb & Glesne (1992)은 미국의 교육학 대학원에서 강의계획서(n=55)와 질적 연구 교육자(n=75)를 조사하여 주요 교육 내용과 주요 교재들을 제시하였다. Drisko(2008)는 미국의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서의 교육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n=48)의 내용분석과 교수자(n=57)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내용 중 ‘질적 자료 분석’이 취약하며, 구체적으로 질적 자료의 코딩 기법, 메모의 생산과 이용 방법, 질적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 도구의 이용 교육이 대부분 생략되는 경향이라고 언급하였다.

Hurworth(2008)는 호주 및 영국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분야(교육, 사회학, 간호학, 심리학 등)의 교수자(n=9)의 질적 연구 교과목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교과목 개요, 특정 질적 방법론 검토, 패러다임 차이·양적 및 질적 연구 차이·다양한 질적 방법과의 차이, 연구 설계/프로포잘, 참여관찰,

인터뷰,도큐먼트 분석, 현장연구, 자료분석 (수작업),자료분석 (컴퓨터 지원), 진실성·신뢰성·엄격함, 윤리, 질적 연구의 역사적 측면, 글쓰기, 기타 주제 및 시험이었다. 또한 강의의 진행 경향은 일반적 개요로 시작하며, 특정방법론과 패러다임을 검토하며, 많은 시간을 데이터 수집에 소요하였다. 교육과정의 1/4이나 1/3 정도를 참여관찰, 면담 이론 및 관련 예제에 소요하여, 다른 주제에 비해 과도하게 가르치는 경향이였다. 문서자료 검토, 시각매체의 이용, 내러티브의 이용 같은 특정 자료수집 기법은 거의 무시하였다. 분석에 관련 이론의 적용과 같은 실제 예제는 거의 없었고, 분석 같은 비판적 영역은 제한적 이였다. 컴퓨터 지원 자료 분석을 다루는 강좌는 거의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수자가 질적 연구에 핵심적이라고 하는 주제는 표집, 윤리, 분석, 엄격함, 글쓰기인데, 매우 적게 다루어졌다. 분석과 글쓰기는 매우 늦게 강의 후반에 다루어졌다. 혼합방법 접근을 적용할 때 질적 연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Hurworth 2008, 160-184).

두 번째 연구 유형은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역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Harlos, Mallon, & Campbell(2003)은 미국 조직경영학 전공자들의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해석적, 비판담론적, 사실적 접근에서 패널 모듈 운영 경험을 제시하였다. Delyser(2008)는 미국의 지리학 박사과정생들의 질적 연구 교육은 고문서 연구, 인터뷰, 전사, 참여관찰, 현장노트 쓰기, 분석메모, 자료 코딩과 성찰적 사고하기 및 글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질적 접근, 기법, 전략, 이론적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의 모듈은 4단계로, 방법론적 인식론적 이론적 쟁점을 토론하며, 방법론적 인식론적 이론적 쟁점과 더불어 특정 방법들과 기법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개별적 연구자들의 연구와 경험 세계를 이해하며, 마지막에는 보다 전문적인 교재나 학술지 논문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질적 연구의 실체를 위한 과제로는 면담하기와 전사, 상이한 방법으로 면담 기술의 구축을 위한 과제, 관찰과 면담 시 상세한 현장노트 기록하기, 고문서 탐구를 위한 과제, 분석메모의 제출, 자료 코딩을 통해 자료 분석, 연구자로서의 성찰과 입장성에 관한 에세이를 제시하였다(Delyser 2008, 238-239). 양성은(2008)은 가족 및 아동 연구분야 대학원과정에서의 질적 방법론 교과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4개 관련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의 강의계획서, IIQM의 수록 강의계획서, 국내 유사학과의 교과과정을 준거로 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에 포함될 5가지의 중심내용과 학습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패러다임, 질적 연구 일반적 과정,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의 비교, 최근 쟁점, 소규모 질적 연구의 수행 과제이다. Onwuegbuzie 등(2012)은 미국의 교육학 대학원에서 엄격한 질적 연구 수행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독특하지만 다소 중복적인 4단계 모듈을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과정을 개요하는 개념적/이론적 단계,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 답론 분석 등 상이한 전통과 인식론을 가진 18개의 질적 분석 기법 제공하는 기술적 단계, 앞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단계로, 자료수집 기법, 자료분석, 자료해석, 글쓰기 방법을 제공하는 응용단계, 마지막은 수강학생들이 전문적 학술모임에서 질적 연구를 발표하는 학자로 등장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연구유형은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들이다. 질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역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Hammersley(2004)는 질적 연구 교육에서 질적 연구 과정을 단일한 절차로 단순화한 절차적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써 수공업자(craft), 전문연구자(profession), 브리콜라주(Bricolage) 이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를 예술 혹은 브리콜라주로 간주하고, 향후는 엄격한 질적 패러다임을 초월하여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브리콜라주적 질적 연구자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reuer & Schreier(2007)는 질적 연구 방법과 방법론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는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자가 자기 자신과 전공을 어떻게 개념화 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가 패러다임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질적 연구방법은 하나의 연구전략이자 연구기법으로 간주되어 수행되어야 할 구체적 단계를 가진 요리법쯤으로 교육된다고 비판하였다. 패러다임 관점에서 질적 연구의 교육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 방식, 교수자의 강의경험, 대학 맥락외의 제도적 맥락, 수강생의 인성과 질적 방법 간의 일치성(fit), 교육적 맥락을 제시하였다. Poulin(2007)은 미국의 교육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의 질적 연구 교육에 대한 교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질적 입장에 대한 인식과 실재를 교육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과 과제 부여, 클래스 활동, 문헌 리뷰, 질적 입장을 반영하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연구설계의 철학적 방법론적 토대를 교육한다. 셋째, 해석적 연구의 적절한 평가준거의 이용을 교육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가의 복잡성과 평가준거를 이용하여 과제하기를 교육해야한다. 넷째, 해석적 탐구 내에서 다양성의 차원과 함의를 교육한다. Preissle & Roulston(2009)는 질적 연구 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학제적 근원의 제시, 이론과 실제의 조화, 도제습을 클래스 기반 교육으로 통합, 공인성과 학술성의 조화 및 질적 연구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언급, 서구적 연구실체의 헤게모니 극복을 제안하였다. Booker(2009)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교수자로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육 전략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질적 연구를 주관적이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양적 방법론에 친숙하고, 실증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의 저항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근원은 선행된 사회과학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해석적 철학과 상호작용적이고 성찰적 과정으로서의 연구설계를 더욱 견고하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였다(Booker 2009, 391).

Cassell 등(2009)은 질적 연구를 수강한 영국의 경영학 연구자들(n=45)을 면담하여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skill)과 지식의 유형을 식별하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스킬과 지식 및 이들의 적용법을 배우고, 3개의 연구실제(반성성, 성찰성, 실천적 지혜)를 통해 개념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Eisenhart & Jurow(2011)는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교육학 대학원에서의 질적 연구교육 전략을 언급하였다.

Ⅲ.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90년대 초중반부터 문헌정보학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합성과 유용성에 관한 긍정적 접근(김정근 1998; 김정근, 장덕현 1999; 설문원, 차미경 1999; 이명희 2005; 이계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장덕현 2001; 장덕현 2002; 이호신 2015)이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의 교과목 개설여부를 검토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전국 31개 문헌정보학과와 교육과정과 해당 대학의 교과목편람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문헌정보학과 석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관해 공식적 독립적인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연관 교과목인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개설여부를 조사하고, 2011년과 2013년 사이의 6개학기 해당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연구방법론 교과목에서 질적 연구의 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과 일반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연구방법론' 교과목은 '연구방법론'이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의 교과명으로 31개 대학 중 26개교(86.6%)에 개설되어 있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12개 대학 중 7개 학교는 박사과정만을 위한 '연구방법론' 심화과정 과목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목이 '질적 연구방법'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었다.

강의계획서를 공개하는 9개 대학(CA, EW, SKK, SMW, YS, CN, JN, KP, PS)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내용 중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9개 대학의 '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주교재는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방법론 교재이거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간행된 방법론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주요 교수 내용은 연구방법의 개론과 더불어 양적 통계 방법 위주로 교수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통계패키지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는 대학원은 EW, KG, YS 였다.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학은 4개 학교 정도였다. 그 언급의 정도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개론적 접근으로 질적 연구설계와 방법(SMW, 1주), 질적 연구개요(SKK, 1주), 질적 현장 연구(CN, 1주), 내용분석(PS, 1주)이었다. 그러나 KP 대학은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양적 혼합연구의 측면에서 질적 데이터분석을 4주간 다루고 있어 다른 학교와는 그 논의 정도가 구별되었다.

이처럼 ‘질적 연구방법’이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정규 ‘연구방법’ 교과목으로 개설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수자의 선호와 판단에 따라 교수자의 다른 교과목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거나 (YS), 혹은 전면적으로 다루어지는 학교(KG)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하자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독립된 교과목으로 공식적으로 교수되기 보다는 ‘연구방법론’의 한 주제로 부분적 개론적으로 언급되거나, 교수자의 선호에 따라 특정 교과목에서 비공식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양적 연구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연구의 질적·양적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은 연구 심화를 위하여 고급 학위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문헌정보학(2014 Best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Schools by USNews)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면 박사과정에서 사회과학방법론으로서 양적 및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상위급 학교일수록 연구방법론 과목이 정기적으로 개설되었으며,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진에 의해 질적 연구방법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33개 대학원중 7개 학교(21%)는 매학기 혹은 격학기·격년제로 박사학위과정에 질적 연구방법을 개설하고 있었다. 상위급 학교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좋은 연구논문을 위해 질적·양적의 연구방법 양자를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권장하였다.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를 단독으로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의 상의를 통해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인접 학과에서 개설된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다.

IV. 국내 대학원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되는 ‘질적 연구방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76편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의계획서는 교수자가 직접 작성한 교과목 진행의 안내 자료로써 교과목의 개요, 교과 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재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교과목의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원이다. 비록 실제 강의 진행에서 약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써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심화된 고급 과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교육중심의 대학, 강의계획서 비공개 대학보다는 박사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연구 중심의 대학교 사이트의 교육과정편람에서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료 선정의 조건은 강의계획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질적 연구’라는 교과목명으로 일반대학원의 3학점 교과과정으로 2011년 1학기에서 2013년 2학기까지 총 6개 학기동안 개설된 석박사과정 강의계획서이다. 동일 교수의 동일 강의계획서일 경우 가장 최근의 것을 선정하였다.

최종으로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교과목을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고 있는 연구 중심의 10개 대학교(CA, EW, HY, SG, SKK, SMW, SN, YS, CN, KP)의 42개 대학원 학과, 9개 전공분야의 총76편의 강의계획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계획서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고, 경향의 공통점과 강점, 취약점을 반영하여 문헌정보학의 교과목 개발에 적용하였다. 강의계획서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부분은 ① 교과목명, ② 필수교재 및 참고문헌, ③ 강의 구조, 학습목표, 교육 내용(주제), ④ 평가방법, ⑤ 과제였다.

1. 교과목명의 명칭

분석의 대상이 된 국내 강의계획서는 10개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3학점으로 개설되는 9개 분야 총 76사례의 강의계획서이다. 이들은 2011년 1학기에서 2013년 2학기까지 총 6개 학기동안 개설된 교과목이며 주로 2013년(38편)과 2012년(31편), 및 2011(7) 자료들이다. 질적 연구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주요 분야는 교육학 및 기타 교육학(28)과 간호학(15)이 우세하며, 사회복지학(11), 사회학(8), 언론학(6), 아동가족학(4), 소비자학(2), 행정학(2)이다.

분석 대상이 된 국내 대학원의 절반 이상의 학과가 주로 선호하는 교과목명의 명칭은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42회,58.3%)이다. 특히, 간호학(12회), 사회복지학(6회), 사회학(6회)에서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14회),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12회) 순이다.

3가지 용어가 혼용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의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질적 연구’의 용어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구분 짓는 전통적이고 통칭적인 용어로 적용되어져 오고 있다면, ‘질적 연구방법’은 전통을 달리하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용어인 ‘질적 연구방법론’은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과 그 공통의 원리와 개별적 차이에 강조점을 두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은 원저작의 'qualitative research methods'를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으로 혼용해석하는 경향이다.

미국 학계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qualitative research' 용어를 적용하여 왔으며, 최근의 강의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표기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아직까지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의 표기는 매우 드물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필수교재

검토된 9개 분야에서 사회학 분야는 평균 3.7책을 필수 교재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2.8책, 체육학이 2.5책, 간호학이 2.3책 순이다.

전체 76사례에서 필수교재로 가장 선호하는 교재는 Creswell 저, 조홍식 공역(2005)의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16회, 21%)이다. 이 책은 비교적 엄격하고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가진 5개의 질적 연구 방법(생애사, 현상학,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을 선정하여 일련의 연구과정과 각 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를 소개하는 정형화된 개론서이다. 저자는 각 방법의 전통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엄격하고 정교한 질적 연구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자연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 관점을 갖는 질적 연구자들은 환영하지 않는 교재이다. 이 책을 교재로 선호한다는 것은 국내 질적 연구 교육의 대체적 경향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김영천(2007)의 '질적 연구방법론I: Bricoleur'(8회), 조용환(1999)의 '질적 연구'(8회), Sherman 저, 유태균 역(2003)의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5회); 홍현미라 외저(2008)의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3); 윤택림(2004)의 '질적연구방법론'(3회) 순이다.

Creswell 저, 조홍식 공역(2005)의 '질적 연구방법론'은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에서 선정되었다. 김영천(2007)의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은 교육학, 소비자학, 아동가족학에서 선정되었고, 조용환(1999)의 '질적연구'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소비자학, 아동가족학에서 선정되었다. 간호학에서는 Maxwell, 이명선 외역(2009)(2회)의 '질적 연구설계 (Qualitative research design)', 교육학에서는 Creswell, 조홍식 공역(2005)(6회)의 '질적 연구방법론', 김영천(2007)(5회)의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 사회복지학에서는 Creswell, 조홍식 공역(2005)(8회)의 '질적 연구방법론', Sherman, 유태균 역(2003)(5회)의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사회학에서는 윤택림(2004)(3

회)의 ‘질적연구방법론’, 조성남, 외 저(2011) (3회)의 ‘질적연구방법과 실제’를 필수교재로 선호하였다.

3. 강의 구조, 학습 목표, 교육 내용

질적 연구의 강의 진행 구조는 일반적인 연구수행 절차와 유사하였다. 또한 강의 구조는 일련의 질적 연구의 이론을 배우는 단계, 연구방법을 배우는 단계,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단계로 구분 할 수도 있다.

학습의 목표는 평균적으로 2.4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학습목표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최종의 학습목표는 질적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학은 질적 연구를 통한 전공분야의 지식 개발이라는 최상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의 내용들을 ‘이해하기(알다/기술하다/설명하다)’, ‘분석하기(식별하다/비교하다)’, ‘적용하기(활용하다/수행하다)’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전체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으로 도출된 교육 내용의 주제는 ① 질적 연구 패러다임, ② 질적 연구 특징, ③ 일반적 연구설계(연구절차), ④ 다양한 방법론, ⑤ 자료수집, ⑥ 자료분석, ⑦ 글쓰기, ⑧ 엄격함 및 질 평가, ⑨ 윤리, ⑩ 과제 발표, ⑪ 기말고사, ⑫ 질적연구물 비평이다. 이들 주제의 논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286회, 43.2%)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하는 주제였다. 그 다음으로 자료수집(80,12.1%), 자료분석(68,10.2%), 질적 연구 특징(46,6.9%), 글쓰기(45, 6.8%), 질적 연구 패러다임(42), 과제 발표(39회), 연구설계(38회), 엄격함 및 질 평가(28회), 윤리(28회), 기말고사(14), 질적 연구물 비평(12)이다.

서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질적 연구 특징 (46회), 질적 연구 패러다임(42회), 일반적 연구 절차(10회)이다. 본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주로 다양한 질적 연구유형(286회), 자료수집(80회), 분석(68회), 연구설계(28회), 글쓰기(19회), 윤리(12회), 엄격함, 질평가(12회), 질적 연구물 비평(12회) 순이다. 다양한 질적 연구유형에서는 다양한 질적 방법의 정의, 배경, 유형, 연구절차, 관련논문의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연구유형에서 빈번히 논의되는 방법은 문화기술지(38회), 근거이론(37회), 현상학(36회), (구술)생애사(19회), 사례연구(17회), 내러티브(15), FGI(10회), 담론 (6회), 실행연구(5회) 순이다.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현상학은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질적 연구 유형 이었다. 그 외에도 전공 분야마다 비중을 두는 방법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에서는 FGI (8회), 실행연구(3회), 교육학은 내러티브(11회), 실행연구(2회), 사회복지사는 내러티브(9회), 사회학에서는 (구술)생애사(6회), 담론분석(3회)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교과목의 결론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과제 발표(39회), 글쓰기(26회), 질 평가(16회), 윤리(16회), 기말고사(14회) 이다.

4. 평가방법

76사례의 평가항목은 과제 등 8개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평균적으로 평가 항목은 2.5개였다. 76사례의 교과 이수 평가 항목에서 과제(73건, 38.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과제의 반영율은 20~80% 였다.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3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강의에서 과제는 필수적 공통 평가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출석(35건, 18.3%), 수업 참여도(31건, 16.2%), 발표(21건, 10.9%), 시험(17건, 8.9%), 토론(8건, 4.1%), 평소학습(7건, 3.6%), 기타(4건)였다.

5. 과제

학습과제는 학습자가 교과목 학습내용과 이해, 확인, 적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의 내용을 내재화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기제이다.

질적 연구 교육은 전통적으로 'learning by doing'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즉, 학습자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을 배우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학습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과제 유형에는 '프로젝트 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작성'(57회)이 가장 우세하였다. 선행 질적 '연구논문 비평'(27회), 데이터분석(20회; 면담자료분석 10회, 관찰자료분석 10회), 연구계획서 작성(14회), 권장독서물 읽기(10회), 성찰적 글쓰기이다.

특히, '프로젝트 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작성' 과제 유형은 학습자가 관심대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개별 혹은 집단별 소규모 질적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것이다. 이 과제 유형은 질적 연구 교과목에서 학습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이론과 방법, 전체 연구 과정을 이해하고 연구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응용해보는 것으로 질적 연구 학습 수행의 학습목표이자 최종의 성과물이 된다. 여기에는 연구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결과 도출, 연구자 성찰까지를 포함한다. 교수자에 따라서는 학술지 수준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차후에는 공동연구로 학술지 발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선행논문 비평'은 연구방법의 적용과 개선을 추구하고 논문작성의 안목을 배양하고자 하는 방법론 비평과제이다. 관심있는 주제나 특정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보고, 연구설계나 연구과정, 연구결과 도출 과정을 비판하고 평가하며, 특정 연구방법의 개선점을 모색 하

는 것이다. 선행 논문 비평은 질적 연구 직접 수행하기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배우는 좋은 과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찰적 글쓰기’는 질적 연구수행자로서 성찰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글쓰기 유형은 프로젝트 과제의 최종보고서 작성에 포함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연구과정을 통하여 연구도구로써 자신과 자신의 연구과정을 성찰하도록 하여 더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도록 독려하는 수준 높은 과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찰적 글쓰기는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제 유형이다. 주제는 수업을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자아 성찰, 특정 주제 선정, 연구방법 선정에 관한 입장 표명하기, 혹은 주제 선정·자료수집 및 분석에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의 극복 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 질적 연구자로서의 반성과 성찰의 글쓰기이다.

6. 국내 전공별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

본 연구의 결과 국내 질적 연구방법 교육 경향을 요약하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익히고 연구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학습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의계획서를 통해 살펴 본 전공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 교육학 분야는 국내에 질적 연구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양대 축이다. 간호학은 질적 연구가 가장 번성한 분야이기도 하다. 간호학은 자연과학적 전통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이 강하였다. 질적 연구의 엄격한 연구절차를 강조하고 다양한 질적 방법을 배우는 것을 중시하였다. 간호학은 철학적 인식을 강조하였지만, 실제 과제활동이나 강의에서 철학적 인식을 강조하거나 촉진하는 학습활동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 성찰이나 질적 연구자 인식과 태도변화를 강조하는 정도는 약하였다.

사회복지학은 후발분야로 간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이다. 사회복지학에서도 다양한 질적 방법과 연구절차의 교육을 중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강조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방법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다보니 연구기법 위주로 질적 연구접근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학은 질적 연구를 문화기술연구와 동일시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왔다. 교육인류학의 전통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 보다는 관찰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의 진정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질적 연구자로서의 성찰을 중시하고, 수업 관련 독서물 읽기를 강조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양적 연구의 보완적 차원에서 혹은 혼합연구의 일환으로써 질적 연구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료수집의 기법 보다는 질적 방법에

대한 방법론의 이론적 비판을 중시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하나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간주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었다.

V.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

본 연구에서는 76편의 질적 연구방법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도출된 12개의 교육 내용 주제 (4.3 내용)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을 위한 핵심 교육내용으로 질적 연구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이해, 연구설계,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글쓰기, 질적 연구 평가 준거를 제시하고 교수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질적 연구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배경

질적 연구방법을 최상으로 배우고 최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질적 연구에 대한 이론 지식을 먼저 갖추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 수행을 경험하며, 동시에 질적 연구자로서 자신의 신념, 경험, 연구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진정한 질적 연구자가 되는 진정한 이론적 첫걸음은 철학 공부에 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철학 공부는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질적 연구방법 배우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 교육의 시작점으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패러다임이란 행동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기본 신념으로써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및 방법론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Denzin & Lincoln 2000). 질적 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에는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차이는 연구의 전체과정을 좌우하게 된다. 즉, 패러다임에 따라 탐구현상, 연구설계, 기본 가정, 연구방법의 선정, 연구 목적, 연구의 질문, 연구자의 역할, 자료수집 방법, 자료의 분석 및 해석방법, 연구결과의 표현 방식, 평가 방법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연구의 기초적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질적 입장(qualitative stance)을 인식하고 연구 실재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여러 사상과 철학에 기반하여 발전하여 왔다. 질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철학인 현상학 (후설 현상학, 실존적 현상학), 해석학(딜타이 해석학, 가다머 해석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포스트모더니즘 (신경림 외 저 2004, 12), 후기 구조주의, 후기 구성주의 (곽영순 2010)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설계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 전체가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인 연구 실체가 가능하도록 질적 연구방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단일화된 연구절차나 연구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 일반적인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적 연구절차를 익히면서 순환적 나선형적 연구절차와 이론적 표집, 의도적 표집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연구 설계시 이론과 실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설계의 철학적 및 방법론적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 첫째, 연구설계시 반드시 연구자 본인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설계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초보자들 및 기능적인 질적 연구자와 교수자들이 범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전체를 무시하고 연구질문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양한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정을 무시하고 데이터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질문이 연구방법과 연구설계를 이끌어가는 전제가 되고 만다. 이는 철학적 기반이 없는 기교적이고 형식적인 질적 연구가 되는 것이다. 셋째, 교수자는 상이한 인식론적 가정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물의 선례를 제공하여 연구질문이 연구 목적, 이론,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3.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적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연구, 내러티브, 생애사, 실행 연구 등이다. 각 방법의 정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 목적, 연구절차, 분석 및 해석 방법, 연구결과의 표현양식, 평가 방법,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때, 각 연구방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물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당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동일 연구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질적 방법(예, 현상학: 근거이론접근, 문화기술지: 근거이론접근 등)을 적용한 선행 연구물들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더불어, 동일 연구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물과 질적 연구물의 접근과 연구결과도 비교해 보는 것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4.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자료수집과 분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창의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면담이나 참여 관찰 뿐 아니라, 문서분석, 내러티브 이용, 시각매체 이용, 웹페이지, 신문기사 등 다양한 소스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충분한 이론적 지식 없이 질적 연구에 대한 의욕만 가지고 질적 연구에 뛰어드는 초보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자신의 연구현상에 접근하고 연구현상을 풀어나갈 적절한 질문개요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은 철학적 전제와 연구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동료들과 역할 연습을 통해서 면담 기술을 충분히 단련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인 3가지 면담 유형은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 현상학(Seidman 2006), 문화기술적 면담 기술(Spradley 1979)이다, 이를 적용해 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상이한 전통과 인식을 가진 다양한 질적 분석 기법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특히,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교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프로젝트과제를 통해서 수집한 실제 면담자료나 관찰 자료, 또는 교수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자료 분석의 실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분석 능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자들이 프로젝트과제를 통해 면담자료나 관찰자료를 직접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실제로 코딩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과제에는 연구자로서의 방법론적, 선택적 성찰 뿐 아니라 연구자 본인에 관한 성찰까지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수작업의 자료 분석과 더불어 질적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의 적용법도 교육하여 비교분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국내 교육에서는 오히려 수작업의 자료분석을 강조하다 보니 소프트웨어의 이용법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CAQDAS(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예: NVivo 9, QSR International Pty Ltd, QDA Minor 3.2, Provalis Research)는 자료정리와 분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연구자를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주지는 않는다.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질적 자료의 체계적인 컴퓨터기술적 분석이 인간의 융통성, 창의성, 통찰력, 직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을 위한 핵심 도구”(Denzin & Lincoln 2005, 578)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글쓰기

글쓰기는 질적 연구 과목에서 마무리 과정이어야 하고 필수 과정이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는 생각하기 (자료의 분석, 해석, 이론화)와 더불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Waite 2014) 내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쓰기는 생각하기이며, 글쓰기는 분석이며, 글쓰기는 유혹적이고 혼란스러운 발견의 방법이다”(Richardson 2005, 967). 글쓰기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과 연계되어 상호 작용적, 반복적, 역동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교수자는 특정집단의 독자를 위해 다양한 양식의 글쓰기 준비를 제시하고 적절한 글쓰기 예제를 제공해야 한다.

글쓰기 과정은 주로 강의의 마무리 단계로 수행되는데 강의 초반에 주지되어야 한다. 글쓰기는 반드시 프로젝트과제의 현장노트와 성찰노트 내용에 기반해야 한다. 글쓰기에는 반드시 스타일 가이드(예, APA 스타일 방식(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를 제시하여 공식적인 글쓰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질적 연구의 평가 준거

질적 연구의 엄격함과 진실성은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글쓰기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평가 기준을 갖는다. 양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성, 타당성, 신뢰성 등의 개념들이 질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해야 하며, 양적 연구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질적 연구만의 독특한 평가기준을 학습해야 한다.

좋은 질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준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준거는 교육과정의 끝말에 교수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적합한 평가준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는 다양한 평가 준거가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 기반한 패러다임과 이론적 전통의 전제와 일치하는 준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질적 연구의 평가 준거에는 Lincoln & Guba(1985)의 준거, Cresswell(1998)의 준거, Seale(1999) 준거, Richardson(2000)의 준거,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 평가를 위한 준거 등이 있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방법 교과목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국내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교과목의 76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통하여 교과명, 필수교재, 강의구조 학습목표 교육내용, 평가방법,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을 위한 핵심적 내

용으로 질적 연구패러다임, 연구설계, 다양한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다양성, 글 쓰기, 질적 연구의 평가 준거를 제안하고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좋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인 연구 실체가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토대로서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질적 입장(qualitative stance)을 인식하고 실재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질적 연구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교수자들에게 질적 연구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교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의 교육 기회의 증가와 교육내용 강화는 질적 연구의 절차나 기법만을 단순히 구사하는 ‘기능적 기교적 질적 연구자’가 아니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철학적 배경 이해를 근간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진정한 질적 연구자’ 배출에 기여 할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의 교육의 강화로 질적 연구에 관한 심층적 이해에서 생산되는 질적 연구 성과물들이 한국적 지식체 생산에 수준 높게 기여할 것 이다.

참고문헌

- 곽영순. 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갑선. 2002.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인용동기와 참고문헌의 분석.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6(4): 21-47.
- 김영천. 2007.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 서울: 문음사.
- 김정근. 1998.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김정근, 장덕현.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55-75.
- 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 65-92.
- 양성환. 2008. 가족 및 아동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대한가족학회지』, 46(9): 21-31.
- 윤택림.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명희. 2005.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177-201.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

- 보학회지』, 35(2): 273-295.
- 이호신. 2015.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이야기: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149-172.
- 장덕현. 2001.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2(2): 269-288.
- 장덕현. 2002. 정보장애 연구에 있어서 문화기술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18.
- 조성남 외. 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홍현미라 외.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Booker, Keonya C. 2009. "Shifting Priorities : Reflections on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Qualitative Report*, 14(3): 389-394.
- Breuer, Franz, Margrit Schreier. 2007. "Issues in Learning about and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8(1), Art. 30.
- Cassell, V Bishop, et al. 2009. "Learning to be a Qualitative Management Researcher." *Management Learning*, 40(5): 513-533.
- Creswell, John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os Angeles: Sage.
- Delyser Dydia. 2008.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2(2): 233-244.
- Denzin, Norman K., Yvonna S. Lincoln.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Sage.
- Denzin, Norman K., Yvonna S. Lincoln.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Los Angeles: Sage.
- Drisko, James W. 2008. "How is Qualitative Research Taught at Master's Level?."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4(1).
- Eisenhart, Margaret and Susan Jurow. 2011.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in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ed. by Denzin, Norman K., Yvonna S. Lincoln. 2011. Los Angeles: Sage.
- Emerson, Robert M. 1987. "Four Ways to Improve The Craft of Fieldwork."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16(1), 69-89.
- Glaser, Barney G., Anselm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Harlos, Karen P., et al. 2003. "Teaching Qualitative Methods in Management Classrooms."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7(3): 304–322.
- Hammersley, Martin. 2004. Teaching Qualitative Method: Craft, Profession, or Bricolage? In Clive Seale, Giampietro Gobo & David Silverman (Eds.).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London: Sage, 549–560.
- Hurwoth, Rosalind E.. 2007.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Cases and Issues*. Sense Publishers.
- Humphreys, Michael. 2006.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m Beginning to See the light." *Qualitative Research in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3): 173 - 188.
- Kim, Kapseon. 2004. "The Motivation for Citing Specific References by Social Scientists in Korea: The Phenomenon of Co-existing References." *Scientometrics*, 59(1): 79–93.
- Lincoln, Yvonna S. and Egon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1985: 289–331.
- Maxwell, Joseph A. 2004.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Onwuegbuzie, Anthony J. et. al. 2012. "An Exemplar for Teaching and Learning Qualitative Research." *The Qualitative Report*, 17(1): 16–77.
- Poulin, Karen L. 2007.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 Lessons From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3): 431–458.
- Preissle, Judith and Kathryn Roulston. 2009. *Trends in Teaching Qualitative Method: A 30-years Perspective*. Teaching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ed. by Mark Garner, Claire Wagner, and Barbara Kawulich.:Ashgate.
- Richardson, L. St. Pierre. 2005. Writing: a Method of Inquiry.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967.
- Seidman, Irving.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Sherman, Edmund, William J. Reid (Ed.). 1994.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pradley, James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pradley, James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allings, William M. 1995. "Confessions of a Quantitative Educational Researcher Trying to Teach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24(3): 31-32.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Newbury Park, Calif. : Sage.
- USNews. 2014 Best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Schools.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graduate-schools/top-library-information-science-programs>>
- Waite, Duncan. 2014. "Teaching the Unteachable: Some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Pedagogy." *Qualitative Inquiry*, 20(3): 267-281.
- Webb, R. B. & C. Glesne. 1992.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In M. D. LeCompte, W.L. Millroy, & J. Pre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an Diego, CA:Academic Press, 771-81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2001. "Discourse Analysi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2): 269-288.
- Chang, Durk-Hyun. 2002. "Employing Ethnographic Research Methods in Information Barriers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2): 55-75.
- Cho, Seung Nam, et al. 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Practice*. Seoul: Green.
- Hong, Hyunmeera, et. al. 2008.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Welfare*. Seoul: Hakjisa.
- Jo, Yong Hwan. 1999. *Qualitative Research*. Seoul: kyoyookbook.
- Kim, Jung-Gun. 1998. *What is Ethnography in Academic Research*. Seoul: Hanulplus.
- Kim, Jung-Gun, Chang Durk-Hyun. 1999.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Everyday

- Life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Current Research Tren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2): 55-75.
- Kim, Kapseon. 2002. “The Co-occurrence Phenomenon of Both Korean and Non-Korean Literatures Within the Korean Reference: An Analysis on the Citation Motivations and References by Social Scient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4): 13-37.
- Kim, Young Chun. 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 Bricoleur*. Seoul. Moonumsa.
- Kwak, Youngsun. 2009. *Qualitative Research: Philosophy, Art, and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Lee, Ho-Sin. 2015.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149-172.
- Lee, Jae-Whaon, Yeon-Ok Lee, Durk-Hyun Chang. 2004. “Methodology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of Minority Group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2): 55-75.
- Lee, Myeong Hee. 2005. “Some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177-201.
- Seol, Moon-Won, Mikyeong Cha. 1999. “Some implication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th Anniversary of Founding Depar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EWU. 65-92.
- Yang, Sungeun. 2008. “Course Development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Family and Child Studi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9): 21-31.
- Yoon, Taek-Lim. 2004. *Qualitative Resarch Methodology*. Seoul: Arche.